

여러분

작년 6 월 가나자와시는 유네스코 크래프트 창의도시의 등록인정을 받았습시다만, 벌써 이번달로 인정 1 년을 맞이했습니다. 앞으로도 창의도시 가나자와를 더욱 빛내기 위해 올 3 월에 책정한 창의도시추진 프로그램에 따라 각종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그 전략 중 하나로써, 가나자와시에서는 지난달 말에 본 시를 대표하는 회소 전통공예인 후타마타 화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.

후타마타 화지는 1300 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에도시대에는 그 당시 영주의 보호를 받아 ‘가미스키(종이뜨기)’라고 불리는 다수의 장인이 화지를 만들었습니다. 이 화지는 영주의 공식 의례 등에 사용되는 ‘가가호쇼’라고 하는 고급 화지로써 일본 전국에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.

그 후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 기계화와 양지가 보급됨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였고, 1960 년대 이후에는 가미스키 장인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시내에 3 사업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지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존재이며, 화지를 사용한 공예품이나 기모노 제품은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.

크래프트 창의도시 가나자와에서도 이것을 끊기게 하는 것은 큰 손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중한 기술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검토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

제 1 회 회합에서는 유식자와 생산자로 구성된 위원들이 ‘화지 장인의 후계자 육성’, ‘화지의 용도·판로 확대’, ‘원재료의 공급체제 정비’로써 후타마타 화지의 재흥을 도모할 것을 확인했습니다. 앞으로 연도 안에 3 번의 회합을 열어 프로그램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

앞으로도 크래프트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‘수작업의 도시’로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합니다.

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

(가방, 종이공예품 등)

